

합동-통합 증경회장단 55년만에 한자리에 모여

오는 8월 10일 연합예배 드리기로 결의



55년만에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증경총회장들이 만나

양 교단 증경총회장들 30일 55년만에 만나 사랑의교회서 기도회 갖기로 "형제교단 선한 영향력 높여 한국교회 일치·화합 앞장서자" 공감대 형성

1959년 이후 만 55년 만에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증경총회장들이 6월 30일 양 교단 50여명의 증경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증경총회장들은 오랜만의 '해후'에 서로 반갑게 악수나 포옹을 하는 등 정겨운 만남을 갖고,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연합예배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연합예배 준비를 위해 위원을 선정하고,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발표할 선언문 작성 위원도 함께 선임기로 했다. 예장합동 서기행 목사 김동권 목사 홍정이 목사 예장통합 김삼환 목사 김순권 목사 조성기 목사 등은 지난 3월부터 양교단의 일치와 화해가 이뤄져야 진정한 한국교회의 화합이 도모되고, 통일한국도 가능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물밑 만남을 진행해 왔다.

이날 양 교단 증경총회장단 모임에 주도한 서기행 목사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라는 전제 아래 모일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한국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교단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말하고, "형제 교단이 협력하여 한국사회

에 선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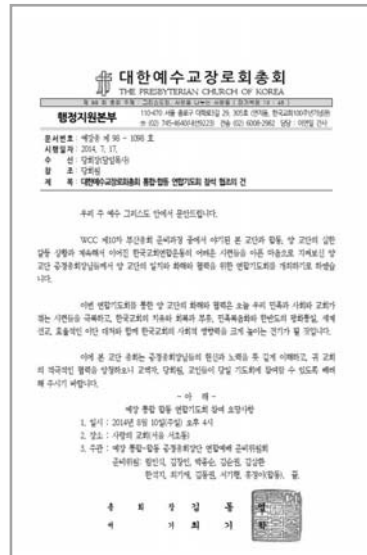
예장통합 김순권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아픔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모임을 주선했다"고 말하고, "오는 8월 10일 양 교단이 연합하여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목사는 "이번 모임은 정치 색깔도 없고, 양 교단이 합하지는 것도 아니며, 증경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회를 갖는 것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예장합동 서기행 목사 사회로 드린 연합예배는 예장합동 최기재 목사 기도, 예장합동 홍정이 목사 성경봉독, 예장통합 김삼환 목사 설교, 예장통합 립인식 목사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경과보고와 예장합동 김준규 목사의 폐회기도로 회무를 마쳤다.

김삼환 목사는 '거룩한 연합'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쁨은 제사장 같다'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혈몬산에 내린 이슬같이 이 땅에 도 축복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론했다.

또한 "형제가 하나되지 못하면 남북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면서 "형제의 화합으로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제56회 총회장을 역임한 방지일 목사(104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항상



단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내 생명을 주께 드릴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한석지 최기재 김준규 김지연 김도빈 김동권 서기행 장차남 김용실 최병남 서정배 김삼봉 이기창 정준모 변남주 이해민 김정중 박갑용 홍정이 목사, 권영식 심관구 강자현 김삼술 장로(이상 합동) ▲방지일 한국식 남정규 김윤식 김창민 박종순 민병여 유의웅 이규호 최병두 최병곤 김순권 안영로 이광선 김삼환 지용수 김정서 목사, 계준혁 김건철 이흥순 김범열 장로(이상 통합) 등이 참석했다.

신현옥 목사,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사과 해

"표현 미숙이었다. 한국 교회에 용서 구해, 신학적 지도 받겠다"



신현옥 목사(평택 시온세계전교회)가 17일 오후 4시 종로카페 민들레레토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선 목사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신 목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한 목사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나.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교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 미숙으로 인한 불찰"이었다며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이신 예수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그

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신앙고백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미국 로고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외에 타 대학에서 수학했다고 밝히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교회 정서를 잘 몰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덕망 있는 교계 지도자들에게 신학 지도를 받겠다는 결심으로 지도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지도를 잘 받아 목회를 잘 하겠다는 각서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신 목사는 "목회자로서 겸손하게 바른 신앙과 신학 아래서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저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저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지적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옥 목사는 이날 이후로 자칭 하나님설 등을 악용하음 개인이나 단체 등 어느 누구도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피종진 목사 이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주후 2014년 8월 1일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한경총, 제37-1,2차 연속임원회 열어



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지난 7월 14일과 25일 오전11시 임원회 가져

한국경목총회(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창 연힐링마을 개원감사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 본당에서 한경총 제 37-1차 임원회를 갖고 신 안전 토 의에서 업무 보고와 예결산안 등을 처리했다.

총회장 김진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에서 서기 박양우 목사의 회원 접명으로 개회가 선언되고, 회순채택에 이어 업무보고에서 한 경총 부흥사회 조직을 정식 안전으

로 결의하고,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날 박용택 목사의 맏시코 선 교보고를 받고 경목총회 김진수 총회장을 비롯 임원들과 함께 맥 시코를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으 고 구체적인 준비과정은 임원회에 위임시켰다.

아울러 기타 안전에서 한경총 부흥사회 조직은 대표총재 총회장 김진수 목사, 대표회장 직전총회장 이상재 목사, 수석상임회장 이기웅 목사, 상임회장 홍향표 목사(사무

총장), 고문 조용목 목사, 임신헌 목사, 허 식 목사, 지왕철 목사, 박 한규 목사, 권다윗 목사, 황원찬 목사를 추대하고 부흥사회 모든 임원조직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마 쳤다.

이날 한국경목총회는 2014년 수련회 및 세미나를 갖고 특별강사로 한경총 수석상임회장 이기웅 목사(영광제일교회)가 나섰으며 총회장 김진수 목사의 축도로 제 37-1차 임원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한경총(총회장 김진수 목사)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612호 한서 빌딩 총회사무실에서 제37-2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경목총회 부흥사회의 조직을 다루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대표회장 이상재 목사와 임원회에 위임했다.

이어 맏시코 선교대회준비위원회보고(위원장 박용숙 목사)를 맏시코 선교사 박용택 선교사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김진수 총회장을 비롯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등이 임원들과 함께 맏시코 현장을 답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총, 2014 한기총 회원교단 워크숍 개최 회원 교단간의 소통을 통해 미래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4 일(월) 오후 5시 흥천 테마파크 (강원도 홍천군 소재)에서 400 여 명의 교단 지도자 및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한기총 회원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014 한기총 회원교단 워크숍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 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기총의 정체성 확립과 회원교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하며, 한기총의 발전적인 정책 개발과 비전이 공유되기를 소망 한다"며 그간의 한기총의 상황 들을 설명하였고, "회원 교단간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교회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 것 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앞에 허락하신 사명과 책 임을 깨닫고 교회와 사회, 국가와 그리고 세계 속에 그리스도 인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학재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 김송수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정춘모 목사(총무협의회장)의 성경봉독 후 이용규 목사(증경회장)가 선포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본문과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용규 목사는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향의 시대, 양심의 빛이 꺼져가는 시대이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철학, 높은 도덕성, 발전을 위한 전략, 뛰어난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며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개인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선의 역사를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류성춘 목사(공동회장)의 '대통령을 위하여', 유안근 목사(공동부회장)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정수 목사(공동부회장)의 '민족복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홍상재 목사(공동부회장)의 '한기총 발전을 위하여', 김의웅 목사(공동부회장)의 '한기총 산하 6개 교단 발전을 위하여', 김성숙 목사(공동부회장)의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후 지덕 목사(증경회장)의 격려사와 조정대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또한 한기총은 15일 오전 11시 제25-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전들을 처리했다. 이날 실사위원회 보고에서 예정총회(총회장 홍재철 목사), 미국연합장로회총회(단체장 최양선 목사), 기독교시민연대(단체장 김경직 목사) 이상 2개 교단과 1

개 단체를 가입승인 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한국기독교성폭력예방교육원', '한국기독교동성연애금지교육원', '한국기독교교마약퇴치교육원', '한국기독교교법죄예방위원회', '북한어린이돕기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이버대책위원회' 이상 7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임명하기로 결정되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의 건으로 발표된 조직도에는 공동대표 홍재철 목사, 이용규 목사, 이광선 목사, 임신헌 목사, 이강평 목사, 이승렬 목사, 이종복 목사, 상임회장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이며 고문, 공동회장, 부회장에는 한기총 임원들로 구성되고, 실무총무 최명우 목사, 실무부총무는 윤덕남 목사, 도용목사가 맡기로 하였다. 기도회 목적은 "침체된 한국교회 기독교를 위한 운동으로서 한기총의 위상을 회복하며, 교회전도복을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교회 성장의 한계를 극복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대통령을 위해 전국적 기도운동을 하여 국가 경영에 간접 참여하고, 국정동반자로서 차기 대통령 선출 시 보수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등이다. 기도회는 봄, 가을로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70여 개 지역기관장, 시·구·군의원, 교회대표 및 성도들이 참석할 것이다. 기타안전으로 목회대학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목회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17대 집행부 '힘찬' 출발

김동규 신임회장, "협회 홈페이지 개선, SNS·스마트폰 어플 등 활용에 온라인 소통 강화"



한국대학홍보협의회(KUPA)가 25일 제17대 집행부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동규 신임회장(한신대 대외협력홍보팀장)과 박창호 전임회장(한국외대 홍보부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한신대 채수일 총장과 박성태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우재철 대학저널 발행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한신대 채수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신대 대외협력홍보팀장이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회장으로 일하게 된 것과 집행부 출범식을 한신대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학 홍보 담당자들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협회 홈페이지 개선, SNS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KUPA 스마트폰 회원수첩 어플 사용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회원교, 일반인, 수험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6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대학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17대 신규 임원은 회장에 김동규(한신대), 수석부회장에 이정규(순천향대), 부회장에 송덕익(단국대)·최석교(한림대)·홍기석(동신대)·정정용(계명대)·정종화(동명대), 감사에 박재욱(KAIST)·박희영(서울시립대), 이사에 김지현(숭실대)·김호섭(건국대)·백승귀(명지대)·김헬레나(서울여대)·이재호(협성대)·김형욱(남서울대)·임정완(중앙대)·유연봉(전주대)·설인규(대구가톨릭대)·정성환(영산대), 감사에 김현을 수행하면서 협회 홈페이지 개선, SNS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사랑 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4년도 목표 :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승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춧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담임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TEL 031-974-7091

『CTS 뉴미디어 목회과정 11기』 수강생 모집

설교와 미디어 목회를 위한 CTS의 특별한 교육과정!

CTS기독교 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주 동안, 노랑진 본사에서 진행되는 'CTS 뉴미디어 목회과정 11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TS가 한국 교회 섬김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전국에서 지원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해 설교 클리닉(심민수 교수)", "설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이태근 목사)", "성경과 설교(이성민 교수)",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서길원 목사)", "문화 사역과 미디어 목회(김정현 목사, 하정완 목사)" 등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목회방법을 제시한다. 특별히 본 과정은 일대일 코칭과 컨설팅을 통

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본 과정을 준비한 CTS는 "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수료생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교단을 초월한 연합의 장이 되길 소망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교회에 맑은 영적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돕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CTS 방송 프

로그램에 출연하는 특전을 제공하고, 수강생 모두는 HD 기자재 방송 설교 실습과 교회 음향 정비(영상, 음향)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과정의 수강료는 30만원이며 수강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tsmedia.co.kr)에서 8월 29일(금)까지 접수한다. (문의 02-6333-1166)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28명의 수용자들 제기의 아버지학교를 수료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경북 청송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소장 신동운)에서 지난 6월 13일(금)부터 7월 4일(금)까지 (사)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후원으로 경북북부 제22기 이자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들이 제1기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1주간은 '아버지의 영향력', 2주차 '아버지와 남성', 3주차 '아버지의 사명', 4주차는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31명이 지원하였지만 28명의 수용자가 수료를 하였다.

특히 4주차에서는 수용자와 가족 간에 영상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수용자 중 조○○는 어머니께서 아픈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된 삶과 불효 때문이라면서 '어머니 홀소 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바란다.' 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교도소에 오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며 다짐하자 이 아들의 영상편지를 본 어

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아들! 이제 얼마 품에서 잘 살자'며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

또한 아빠의 모습을 본 딸은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할머니는 염려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있다가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히자 이 모습을 바라본 다른 수용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세족식을 통해 수용자의 발을 씻겨줄 때 참석한 전 수용자가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도우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다짐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한 수용자는 감히 어떻게 이 죄수가 세족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거부를 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한의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학교를 참관한 신동운 소장은 "이분들이 대체 무엇을 위하여 4주간을 금요일마다 이 먼 곳을 오셨을까요? 여러분께 여러분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4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흔들릴 때마다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무더운 날에 낮 모르는 여러분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 사랑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라면서 진심어린 권면으로 격려했다.

또한 신 소장은 먼 길을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신 아버지 학교 관계자와 이 프로그램을 주선해 주신 이기학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28명의 수료자들을 축하했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우리나라의 가장 엄중한 교도소이다. 일명 날아가는 새도 비켜 간다는 곳이다. 이번 수용자 아버지 학교는 신동운 소장과 사회복지과 조상범 과장과 각 과의 과장들이 협업하지

않았다면 할 수도 없었다. 수료자의 28명은 일반 수용자가 아니라 모두가 독방에 있는 분들이었다. 신동운 소장은 이번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 목사님! 아버지 학교를 통해 독방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했다. 비록 다른 교도소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2교도소에 와 독방에 있지만 이분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아버지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 책임자인 사회복지과 조상범 과장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써 가족으로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CTSI, 작은교회 여름성경학교 후원

작·은·세 프로젝트 통해 하나님 사랑 전해

CTSI International(이사장 감경철, '이하 CTS')은 지리산선교동지회와 함께 '여름 성경통독 캠프'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 2박 3일간 함양 염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리산 지역 6개 작은교회의 아이들 40여명이 모여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CTS의 작은교회세우기 프로젝트('이하 작·은·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캠프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작은교회를 위해 연합캠프를 후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산선교동지회 노태곤 목사는 "지리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 작은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 가자며 합심하여 기도했다."

CTSI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작은



교회의 자립 및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다짐했다. 작·은·세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의 균형 있는 성장과 부흥 △작은교회 교회학교의 부흥 △다음세대 세우기 등을 목표로 하는 CTS의 국내선교 사역이다. 작·은·세 프로젝트 후원은

02)6333-0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CTS는 CTS기독교TV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행복한 섬김과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제3세계의 빈곤과 굶주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국내 농어촌 미자립 교회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독교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www.ctsi.or.kr)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제20대 이락원 이사장 14일 취임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은 14일 오후 56주년기념관에서 제20대 이락원 이사장(68·서대전중앙교회 원로목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정상철 충남대 총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교계 인사 및 언론사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락원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남대를 세우시고, 58년 동안 지켜주시며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시대변화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창학이념을 구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 취임사를 통해 "서로 정직하고, 존중하고, 성실하자"는 3가지 당부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임영수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의 기도에 이어 권용근 영남신학대 총장이 '위기의 지도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고, 김형태 한남대 총장이 행운의 열쇠를 신임 이사장에게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한상봉 한남대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하였고, 교수 및 직

원, 학생 대표 등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락원 이사장은 중앙대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대전중앙교회 담임목사와 장로교총회 환경보존위원장, 대전신학대 이사, 한남대 이사를 역임했다. '믿음에 이르는 길'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신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본지 부사장

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시온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임동보수 명예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에스파스 B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담임 이규필 목사
임동보수총회장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임동보수총회장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주일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이런이부예배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심야 기도회
프리스트 성경공부

오전 9:30
오전 11:00
오후 2:00
저녁 7:00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주일 오전 9:30
주일 오전 9:30
(토) 저녁 7:00
(금) 저녁 9:00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임동보수 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임동보수 회의록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김미경 사모 CD 음반출판 기념회」

2014년 7월 18일 JT 그랜드호텔에서 Alga 김미경 사모가 CD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Alga’란 ‘Alpha’와 ‘Omega’의 합성어로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늘 길에서 부르는 노래’를 타이틀 곡으로 제작된 이 CD는 2곡의 자작곡을 비롯해서 총 10곡의 주옥같은 복음성가 곡들이 담겨 있다.

김종환 목사의 부인이기도 한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는 “탈라트를 땅에 묻고 있던 게으른 종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숙제하는 맘으로 음반제작을 했으며, ‘하늘 길에서 부르는 노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나를 기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천국

Alga 김미경 성가 CD 출판기념회

타이틀 곡 “하늘 길에서 부르는 노래”

소망을 갖길 바란다”며 소견을 밝혔다.

김미경 사모는 성신여자대학교와 미국 CalArt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소프라노 솔리스트, 오페라 “나비부인”, “러시아 음악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현재는 LA에서 성악지도자(Vocal Instructor)로 활발히 활동하며, 미주 복음방송 ‘시온의 아침’ 프로그램의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가 CD 출판기념회에서 열창하고 있는 모습.

한교연 실행위, 임시총회에서 교단인사 16명 명예회장 추대

4개 교단 2개 단체 가입 만장일치로 인준 승낙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7월 14일(월) 오후에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강당에서 제3-1차 실행위원회 및 제3-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4개 교단 2개 단체의 가입을 확정했다.

제3-1차 실행위원회는 140명(출석 52명 위임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개최돼 4개의 교단과 2개 단체의 가입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임시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임원회에서 추천한 고시영 목사(통합)를 법안인사로, 김우신 장로(통합)와 김장권 장로(기성)를 법안 감사로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김종복 목사(예성 총회장)의 사회로 열려 박창우 장로(회계)의 기도, 송금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의 성경봉독, 함동근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설교와 직전 대표회장 박우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합동근 목사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본질에서 이탈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썬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

우는 것처럼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앞에 분명한 신앙고백적 결단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3-1차 임시총회는 198명(출석 65명 위임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개최돼 실행위원회가 심의한 4개 교단과 2개 단체의 신규 가입 건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새로 가입이 승인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 동부 총회장 안호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 남부 총회장 강찬순 목사),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 총회(총회장 최재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총신측 총회장 김종환 목사) 등 4개 교단이다. 또한 대한민국바로세 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총재 전광훈 목사), 세계기독교역사지도자선교회 (대표회장 장은화 장로) 등 2개 단체의 가입을 인준했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기존 5명의 명예회장보다 추가로 16명의 명예회장을 추대했다. 다음은 명예회장 명단: 명예회장(기존) 방지일 목사(통합) 김장환 목사(기침) 김홍도 감독(기감) 김종훈 감독(기감) 최성규 목사(기하성) 명예회장(신) <가나다순> 김규섭 목사(개혁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합동 증경총회장) 김명혁 목사(합신 증경총회장) 김윤기 목사(개혁선교 증경총회장) 김창인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노태철 목사(예성 증경총회장) 박광수 목사(기하성 증경총회장) 박태희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신신목 목사(예감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오희동 목사(예성 증경총회장) 유원근 목사(대신 증경총회장) 이규호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이만신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합동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백성 증경총회장)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1부 개회예배는 박영길 목사(개혁 총회장)의 사회로 공동회장 강진문 목사의 기도, 허혜숙 권사(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 이신웅 목사(기성 총회장)의 설교,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신웅 목사는 ‘오직 성경으로’ 제하의 설교에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성경의 핵심이며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께게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종아리 걷어붙이고 회초리 때리며 “나부터 회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대성회’ 개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기도대성회’가 7일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교회의 은퇴 목회자들이 앞장서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려가며 나부터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김진옥 목사(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상임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김진호 목사(기감 증경 감독회장)가 ‘박넙쿨이 주는 교훈’(온4:10~11)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진호 목사는 ‘박넙쿨’ 하나로 기뻐하기도 하고 세상을 포기하려고까지 낙심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에서 세상의 명예와 돈에 일희일비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빗대어 말했다.

박넙쿨을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세, 명예 등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으로 본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 박넙쿨을 더 의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구원해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들어 쓰기 위해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 바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저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고 강조했다.

회개의 기도시간에는 각 광역시

와 도를 대표해 이상형 목사(서울), 조영호 목사(부산), 신현진 목사(대구), 김기복 목사(인천), 방철호 목사(광주), 김용호 목사(대전), 김경호 목사(울산), 이철 목사(강원), 이재창 목사(경기), 구동태 목사(경남), 한진희 목사(경북), 오현석 목사(전남), 김광혁 목사(전북), 장을룡 목사(제주), 전갑재 목사

(충남), 남상하 목사(충북)가 기도했다.

참가자들은 기도제목을 읽어내려 갈 때마다 회초리를 내리치며 한국교회의 분열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불쌍한 이웃을 외면한 죄 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찢통차 속 사망 미국 어린이, 최근 500여명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근 2살 된 아들을 폭력 속 차안에 7시간 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비정한 부모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부모 또는 실수로 한 여름 찢통차 안에서 숨지는 유아가 2000년 이후 500여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000년 이후 거의 모든 해마다 30명 이상의 어린이가 맹렬히 달려진 차 안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숫



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애틀랜타의 유아 방치 사건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 채 사무실에서 6명의 여성과 음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살인 계획’까지 도모한 것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시키

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5일 전에는 달구워진 차안에서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때 ‘찢통차’ 유아 사망사건을 두고 용의자의 아버지에게 동정을 보내며 구명운동까지 벌이던 여론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 용의자의 ‘두 얼굴’이 드러나자 인터넷에서는 용의자를 비난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미주타임즈 제공

수원흰돌산수양관

2014 하계성회

“은혜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 ▶ 제29차 초교파 장년부 성회 7.28(월)~31(목) 장소: 연세중앙교회
- ▶ 제78차 초교파 중·고등부 성회 8.4(월)~7(목)
- ▶ 제42차 초교파 청년·대학 성회 8.11(월)~14(목)
- ▶ 제36차 초교파 직분자(제직) 세미나 8.18(월)~21(목)
- ▶ 초교파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 9.8(월)~11(목) 장소: 연세중앙교회

강사 윤석전 목사

제50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등록비·식사 무료 8.25(월)~28(목)

- 대 상: 단독 목회하는 목회자(사모 포함)
- 등 록: 전화 등록만 가능 (02-2060-5114)
- 준 비 물: 교단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보 1매, 신분증(목회자신분증 가능)

목회자 사모만 참석시 담임목사 추천서 지참, 세면도구, 침구

등/록/방/법

www.yonsei.or.kr

— 인터넷등록 ▶ <http://hindol.yonsei.or.kr>를 통하여 등록

— 전화등록 ▶ 전화(02-2060-5114)를 통하여 등록

등록비 ▶ 1인 75,000원 (선등록: 1인 70,000원) 참석자 전원은 각 성회 3일 전까지 등록비를 100% 입금해야 함

☞ 송금할 계좌번호: 우리은행 195-166295-13-006, 농협 100100-51-002787 예금주: 연세중앙교회 (입금 영수증은 성회참여자 필히 지참)

☞ 인터넷 뱅킹, ATM 기계 송금시 입금자 기재 ☞ 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등록확인을 해야 함.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침구

· 주치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 문의 02)2060-5114 Fax. 02)2680-0179

수/원/회/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TEL.031) 227-3111

설교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18)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인인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죽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지요. 즉 본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임 당하시고 사제로 묻힌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똑같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아닌 죽을 몸이지요.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어 결국은 죽음(멸망)으로 끝나 버리고 말게 될 우리 몸이 곧 죽을 몸이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분의 영이 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는 히 11:35 믿음의 선진인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부활의 주님에게 하나로 불

은 자 되게 하시고 산 자로서 오직 하늘 영생의 삶을 사는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신 것이 곧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죽을 몸이 살아나서 산 자로 살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본질하신 그 생명으로 자신을 받은 생명의 아버지임을 확신케 하여 마 23:9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지요. 그렇게 된 후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양자 되는 영"은 원어로 "후도 데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우는 영, 아들로 양육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세상개념인 입양시켜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양자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는 첫 부분 "아바"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여(생명의 아버지여) 이고, 뒷부분 "아버지"는 "내게 하늘 영광 임하시고 하늘 기업 상속주시는 아버지, 또 이를 위해 자비·은총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여(영광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 세우시는 양자의 영이 삽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즉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받을 자로서 역시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증거하신다는 것은 말만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는 분의심을 가리킵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총협 부총재



황성주 박사의 건강칼럼 (53)

“양치질 횡수보다 올바른 칫솔질로 노폐물 제거해야”

치아건강 비결!

치아는 자연치유력이 없다. 한번 나빠진 치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고로 부지런히 닦는 것이 치아건강의 유일한 길이다. 이닦는 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3-3-3법이라고 해서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간이라는 말이 있다. 자주 이를 닦자는 것 자체는 좋은 발상이나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규칙이다.

바르게 이닦는 비결은 충치나 풍치를 만드는 세균이 모여드는 장소에 칫솔로 직접 문질러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세균은 잇몸의 홈 속에 가장 많다. 그러므로 잇몸의 홈 속에 칫솔의 털을 넣는 것이 기본이다. 문제는 하루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긴요한 곳에 닿도록 바르게 닦는 나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어금니는 충치가 되기 쉬우므로 잘 닦아야 한다.

시간은 아무 때라도 좋다. 단 바쁜 아침 출근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

간에 쫓기게 되면 양치질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꼭 하루에 세 번 닦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도 하루 한 번은 제대로 닦아야 한다. 양치질 할 때 치약은 양치질을 부드럽게 하고 충치예방에 기여하는 등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입 안 청소는 칫솔이 하는 것이지 치약의 역할이 아니다. 치약으로 닦으면 입안이 상쾌해지는 것도 사실이나 청량제의 작용일 뿐 입안이 깨끗하게 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치약에의 과신은 금물이다. 값비싼 치약이 마치 치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처럼 과대선전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치약 선전비의 1/10만 바른 칫솔 사용법 홍보에 쓴다면 우리나라 구강보건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되리라.

칫솔의 선택과 이닦기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좋은 칫솔은 두부(모가 심어져 있는 부분)가 작아야 하며 모가 부드러워야 하고 털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모가 센 칫솔로 씹작 문질러 마

구 닦아내면 치아가 마모된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가로 닦기는 이러한 위험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완벽한 칫솔은 없다. 치아의 표면이나 잇몸 사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1년에 2회 정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때에는 바른 칫솔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스케일링은 충치와 잇몸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충분한 갈습습취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간접적인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치아는 자연치유력이 없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치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황성주 박사



설교

한국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엘리사는 쓴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왕하 2:19-21) 여러 세기 후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동일한 영적교훈을 가르쳤다. 더러운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와 죽음을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얼마 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의 설문조사에서 천주교는 60%, 불교 50%, 기독교가 20%의 호감도를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추락은 물론 성직자에 대한 불신, 종교 본연의 의미 퇴색 등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오늘날, 왜 교회는 이처럼

외면 받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무분별한 교세확장, 성직자의 자질, 교인들의 특권의식, 교회와 사회의 이질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교회 확장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확장인가? 거두어들이는 헌금이 아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쓰이고 있는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교육관을 늘리고 주차장을 사들이며 교회의 묘지를 물색한다.

정작 교회 안의 고아와 과부, 교회 밖의 청소년과 노숙자를 돌아보지 않고, 사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당의 모습을 보고 어안이 병병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끼리끼리의 잔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공허함마저 드는

것은 혼자만이 느끼는 것일까.

하나님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에 유의하지 아닐 때에 의식들은 많아지고 사치에 흐르게 된다. 품성 개발을 게을리 할 때, 영혼의 각성이 결여될 때, 단순한 경건이 멸시를 받을 때, 교만과 허식에 대한 사람이 장엄한 교회의 건물과 찬란한 장식과 다양한 의식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외적 우세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은 성실한 크리스천 신앙의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비유를 다시금 곱씹어야 할 때이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3대요소 (삿13:8-14)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침입으로 생기는 곤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곧바로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삼손이라는 한 나실인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사람은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반듯이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성별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마노아 부부의 삼손을 잘 양육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좀 더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자.

오늘 가장 가정에서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처방전은 많이 내려놓으나 정작 올바른 사는데 대한 지침을 가정 교육의 교사인 부모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하는 교육적 관심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삿 13:12)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것은 태어날 아이에게 요구되는 나실인의 생활규범이 무

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하는 자녀로 키우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은 부모의 태도로 오늘을 사는 부모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2. 자녀 교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

자녀 교육은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부(父)와 모(母)의 공동 책임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마노아의 부인에게 성별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교육 방법을 계시하였습니다.(3-5절) 그러나 마노아는 이것을 자신의 부인에게만 제한을 사키지 않고 자신에게도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하고는 ("삿 13:8)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도 아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양육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가정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

오늘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생활

속에서 여백을 메꾸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점차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에 본문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할지 묻자, 여호와와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14절)"물론 여기서 "명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신6:6)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교육이 배제된 교육은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세속주의 등은 신앙 교육이 배제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고루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앞에서 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의미 있는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신앙안에서 바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신앙속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천교회

www.inamhyun.org

“2014년 들어”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담임목사 이춘복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9시)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11시)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1시)	
주일 청년예배(4부)	1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1시)
2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14대(1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3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3시)	
수요일 기도회	오후 9시 30분	대예배(3시)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1시)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1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모정선 신길현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신 김연미 김미경
안운기 김진희

협 동 목 사: 장정화 (퇴) 서기욱
전 도 사: 추정희 진안순 윤영욱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 무 장 로: 고재현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휴 직 장 로: 임복희
은 퇴 장 로: 노남규
협 동 장 로: 이병화

담임목사
모 상 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항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악예배당: 목포시 남악로 52번길 남악크리닝A동 301
TEL. 061-287-0692

진실을 은폐하는 사실보도는 진정한 언론이 아니다

코람데오 닷컴,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사명 주제로 포럼 열어

2014년 7월 17일(목) 오후 1:30부터 코람데오 닷컴 언론사 출범 감사예배 및 포럼을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사명"이란 주제로 서울 영등교회에서 교계 기자들과 독자들이 운영진들과 함께 가졌다. 감사예배 설교는 정주재 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목으로, 포럼 발제는 이병대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언론'이란 주제로, 나이영 목사(CBS 선교기획팀장)가 '기독교 언론의 사명'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기독교 언론 보도가 IT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적응하여 시장 개척을 할 것인가도 과제이다. 일간지들의 발행 부수가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대신 그 자리에 SNS, 페이스북 북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언론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언론 형태를 다양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 코람데오 닷컴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언론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 언론의 사명/나이영 목사 (CBS 선교기획팀장)

기독교 언론의 정체성은 언론인가 아니면 선교매체인가라는 질문으로 압축된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사회의 계몽과 교육도 담당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와 함께 선교와 문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언론이었다. 그런데 기독교 언론의 역할이 현재는 언론인지 선교매체인지 혼란을 빚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민중,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내 문제, 특히 교권 수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성장과 개인 구원, 물질 축복에 매달리면서 교회와 사회 간의 괴리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구조적으로 교회 분열이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 그리고 초교파적인 언론이 너무 많이 생겨난 원인도 있다.

기독교 언론의 사명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정 기능을 하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도 이슈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독교 언론을 위한 제언: (1) 진실을 밝히려라. (2)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감당하라. (3)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라. (4) 그래서 바른 교회공 동체를 만들어 가라. (5)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적극적 언론 기능을 하라고 제언한다.

그리고 스나와 다르문 틀리다고 정죄하는 분위기 △기독교언론은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비판과 감시, 견제는 교회에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지적 △어려울수록 한국교회를 더 세우고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는,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식의 접근 등은 기독교언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위험한 생각이다.교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언론을 선교매체로만이 아니라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사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서 노력해야 한다. 비록 기독교언론이 작을지라도 진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큰 언론이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약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기독교 언론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후 발제자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비평과 교회 보호라는 양자의 역할과의 관계, 전체 기독교회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전문성을 가지는 문제, 방송과 신문의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었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냐 하는 문제는 언론은 사실보도를 해야 하지만 교회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보도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진실보도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집근이 있었다.

나이영 목사는 곧 총회장이 될 한 분의 단란주점 출입을 사실확인한 후 많은 고민 끝에 이후에 담겨 줄 후폭풍을 감수하면서 이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으로 보도를 했다. 숨겨두는 것은 자체적으로 씌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사실보도가 모두 능사는 아니더라도 때로 고름 든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 보도로 말미암아 해당 교단이나 기독교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이병대 목사는 기독교언론은 그 보도의 폭이 교회나 교계 등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 방송사에서 '예수는 신화다'를 방송에 내보내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이를 반

박하는 기독교의 대치가 미흡했을 때, 통장에 2백만 원밖에 없었지만 주요 일간지 등 신문에 논평을 냈고 결국 그 방송사의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아내면서 남은 방송

은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새누리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

주호영이 오늘 빨갱이 것들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과학적이고, 정의롭다. 뉴스 매체들의 글은 대략 이래와 같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언급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



단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특별지원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패선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의 가장 본질은 교통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가 운전한 사람,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맛을 잃고, 실어증에 걸린 이 계절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시원한 말이고 정의로운 말이고 과학적인 말이다. 지금의 세상은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새까만 때뚜기 때들에 의해 집단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 발언을 취하한다. 이번 주호영은 이렇게 못난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새누리당에 한 수 건네겠다. "빨갱이들은 때로 대통령도 굴복시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런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 새누리 의원들에 귀법한다. "말한 것 끝까지 버티고 후속 논리 내놓으면 이긴다. 바른 말을 사랑하는 애국보수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 모두 주호영을 지지·격려 합시다.
칼럼 지만원 박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



담임 김창룡 목사
한경총 부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주일 대예배 치유와 회복 찬양예배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2:00 오후 04:00	GDPC 분당 GDPC 분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화	성령충제 1부 성령충제 2부	오전 11:00 오후 02:00	GDPC 분당 GDPC 분당
수	수요예배	오후 09:00	GDPC 분당
금	중보기도의 밤	오후 09:00	GDPC 분당
토	시명자 학교 천양사역자 학교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3:00 오후 04: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GDPC 분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매일	새벽기도(토요일 제외)	오전 05:00	GDPC 분당

445-96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242번길
☎031)366-2236 홈페이지http://www.gdpc.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총서원의 총재)

사무장: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 2.온전한 심일조와 감시로 물들라.
-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 동여

"말씀에 아멘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케 축복하십시오"
(고후 1:18-20)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상에서 믿음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일기도회: 밤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9시
청년부: 오후 3시30분

〈도시합버스〉
1 종산 → 화정 85-1 교양동 → 송정전차역
850 교양동 → 봉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원
(지하철)
85 교양동 → 신원 800 대화동 → 신원
907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원
(지하철)

82 내곡동 → 영등로 1900 본원산 → 서 울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가량)

주소: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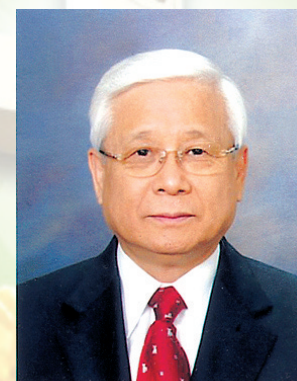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지주왕이 임하시니라(고후 3:17)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분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분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토요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일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장로: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류광수 목사, ‘20년만에 한국교회 앞에 전도 강연해’

한기총 회원교단 워크숍에서 '21c에 회복해야 할 전도운동' 주제로 특강

류광수 목사가 20년 만에 한국교회 연합기관 공식석상에서 30년 전 도검침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난 14일 저녁 2014한기총 회원교단 임원 워크숍 특강 강사로 초대된 류목사의 강의는 청중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며, 진한 감동과 박수갈채 속에 마쳤다.

류 목사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가 전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아서 삶과 전도가 분리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류광수 목사는 30년 전도활동을 보고 드린다고 전제하고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구원 얻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의 성

도들은 제대로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이유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이신지를 모르고 있으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삶을 살기에

전도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역설했다. 류광수 목사는 전도하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 그런 것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직복음, 오직성령 인도라면 전도는 쉽게 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맞다면 가장 시급한 전도에 몰인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윤광식 기자

7.27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메시지 발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7.27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표회장 명의의 메시



지를 발표하고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낸 국군장병과 주한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자”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메시지에서 올해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이 되는 날로 “61년 전 이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측과 북한·중국 등이 6·25전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정전협약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쟁이 발발한 6.25는 중시했으나 전쟁이 끝난 7.27은 지난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비로소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었다”면서 “특별히 올해는 주일이므로 한국교회는 전쟁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또한 38개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7월27일 주일에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엔 참전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자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연합 메시지]

7.27은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61년 전 이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측과 북한·중국 등이 6·25전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정전협약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쟁이 발발한 6.25는 중시했으나 전쟁이 끝난 7.27은 지난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비로소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었다.

국가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낸 국군장병과 주한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주일이므로 한국교회는 전쟁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독도·센카쿠 열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영토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정치적·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 이 땅에와 값진 피를 흘린 유엔 참전용사들, 그들이 대한민국에 공국적으로 바라는 것은 목숨 바쳐 지킨 한반도에서 다시는 비극적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점차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전 61주년, 유엔군 참전 기념일을 맞아 6·25전쟁

을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를 거울삼아 더욱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국군장병과 유엔군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Cedar-Sinai 병원-한인가정상담소에 지원금 전달

한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위해 \$35,000 기부

LA 한인사회에도 유명한 시더사이나이(Cedar-Sinai) 메디칼센터에서 한인 가정상담소에 \$35,000을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한인가정상담소 사무실에서 가졌다.

지난 2012-2014년 동안에도 한인가정상담소에 \$75,000을 지원해 준 시더사이나이 메디칼센터는 올해도 후원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 기부금은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들을 위해 무료 및 낮은 비용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시더사이나이 메디칼센터의 조나단 슈레이버(Jonathan Schreiber)는 “한인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지역사회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소장은 “우리 상담소가 시더사이나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 지원금을 통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한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행사지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한인가정상담소는 상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사회사업을 통해 LA와 그 주변 지역의 미주한인 가정과 개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이다. 또한 창립 후 현재까지 이민 가정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돕고 어려운 이민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매년 7,000여명의 성인 및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더사이나이(Cedar-Sinai) 메디칼센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의 신천지 2인자로 활동했다. 이들 자신이 이단에서 한 일을 공개적으로 회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일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어떤 기관, 교단, 단체에서 해체되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단에서 공식적으로 해체된 적도 없는 자들을 이단 최상경은 이단세탁을 해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다. 이단 최상경은 무슨 권리로 이들을 이단해제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최근 방송사들이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언론사 및 공중과 방송사는 왜 한국교회에서 평생을 이단 전문가로 활동한 목회자 및 신학자를 부르지 않는가? 라고 성토했다.

최상경은 월경 임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한 이단이며, 정동섭은 ‘하나되는 기쁨’이란 책을 발간하여 성경을 ‘성교(Sex)교본’이라고 한 자로서 사이버로 한기총에서 규정된 자이다. 진용식은 한기총에서 소환하여 최상경 월경임태론과 삼신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상경과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신현욱은 신천지 교본을 만든 자로서 지금 현재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이다. 어떻게 이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단 연구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고, 한기총은 유병언을 빨리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가장 먼저 발표한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만규 원로 기자의 기자회견에 40여명의 교계기자들이 참석했다.



도 매우 유명한 종합병원으로서 그 어느때보다 매우 국제적인 의료 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고 전 세계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상대하고 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세계적인 전문의나 최신 의학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이 병원을 찾고 있다.

다니엘 방 기자
Copyright©미주타임즈

수목원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아농아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배 오후 2시
수요일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작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에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담임 박용숙 목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국교회
장로회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김정구
권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성명설리는 교정선교회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즈윌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지혜로운 지식

성경: 잠언 10장 14절 찬송 368장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등으로 스스로를 멸망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14절). “간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쌓아두거나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운택하게 할 것입니다.

제목: 참된 부요

성경: 잠언 10장 15절 찬송 569장

부유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재물은 견고한 성채처럼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견고한’이란 말 속에 힘, 능력, 세력, 권능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는 약하고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분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목: 의인의 수고

성경: 잠언 10장 16절 찬송 521장

본문에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한 행위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과 불의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해 가지만 의인들은 거룩하고 진실

되게 수고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의인답게 정당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성기는 교화이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목: 훈계를 지키는 자

성경: 잠언 10장 17절 찬송 524장

본문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길로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따르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곧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1-12에서 “내 아들이며 여호와 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할 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짓 입술

성경: 잠언 10장 18절 찬송 424장

본문은 ‘거짓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마음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대하지도 마십시오.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성경: 잠언 10장 19절 찬송 204장

말이 많은 사람은 흠을 잡히거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쓸데 없는 말, 경솔한 말, 성급한 말, 거짓된 말, 가식적인 말을 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있다고 말합니다(19절). 말은 생각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4:23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진실되며 선한 말만을 하도록 노력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인의 가치

성경: 잠언 10장 20-21절 찬송 420장

의인은 경건하고 진실되며 선한 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 곧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20-21절). 그러나 악인은 거짓되고 악한 말로 남을 낚추고 공격하며 자신을 높이는데만 열중함으로 가치가 없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21절)는 말은 세상적 지식이나 지혜는 있을지라도 하

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제목: 근심이 없는 복

성경: 잠언 10장 22절 찬송 382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노력하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평안함과 기쁨까지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진정한 평안함이 동반되는 부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기쁨이 수반된 근심없는 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지혜로 낙을 삼으십시오

성경: 잠언 10장 23절 찬송 264장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륜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포장되거나, 동성애가 존중받아야 하는 성적취향으로 인식되어 가는 등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들이 심각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이 희석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한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성결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제목: 의인의 소원

성경: 잠언 10장 24절 찬송 452장

본문에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을 의지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들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그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수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원한 기초

성경: 잠언 10장 25절 찬송 204장

본문의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에는 ‘빼앗다’ ‘소멸시키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로 악인의 멸망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벽하고 영원한 기초를 토대로 어떤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지런한 성도

성경: 잠언 10장 26절 찬송 370장

본문에서 게으른 자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말은 게으른 자는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가 맡은 사명에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에 초 같고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목: 장수의 비결

성경: 잠언 10장 27절 찬송 435장

본문은 장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가장 귀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5:33).

칼럼

안정사회로 가는 길

해 돋는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이라는 민족정신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 올해로 6·25전쟁 64주년이 되었다. 지난날 우리는 6·25의 아픔을 잊지 못해 그 날을 노래해 왔다. “아아 있오라 잊지 우리 이날을 ~” 그날의 울분과 격분으로 공산주의 만행에 대해, 철저한 반공을 다짐하면서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을 외치며 살아 왔다.

시대는 변하여 전후세대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며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정부는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옹공좌파에 편향하여 그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며, 그로인한 구원과 유령언 검거를 위해 검찰, 경찰, 군, 해경등 수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왔지만 결국 검거에는 실패하고 죽은 지 40일이 지나서야 심하게 부패한 백골로 발견되었고, 서울국과수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뒷이야기만 무성하다.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 각 지역 역 광장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를 하는 등 좌편향 조직들은 사회혼란의 선두에 서있다. 명분을 내세워 정부규탄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사회속에 좌파세력을 결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용인하고 있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매스컴들은 씬 없는 방송 보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방송 대담에 출연하는 인사들도 전문지식이 없는 대담방송은 오히려 듣는 분이기만 조장시킬 뿐이다. 국민들은 구원과 유령언의 사건에 대해서도 의구심만 더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유령언이 구원과 신도의 수장이리만 떳떳이 국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떤 세력에 의해 생을 마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유령언은 신도들의 순수 신앙을 짓밟아 버리고 자

신의 부와 명예만을 쫓게오다 국민과 신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혼자 삼켰다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수 많은 억측만 남기고 죽음으로 끝이 났다.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유령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국내에 어떠한 좌파세력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6·25의 빼어난 공산당의 잔학상을 보아왔다. 다시는 이 땅에 좌파 용공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색출검거 하여 안정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가발전의 최고의 협의체인 국회 내에 이석기 같은 R0조직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민의 분노이다. 야당은 국정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모두가 발전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변란이 닥쳐온다면 사회혼란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 순식간에 침몰 되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좌파 용공세력들을 철저히 색출 하여 조치해야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국가의 잘못을 외치고 있음은 매우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좀 더 강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반공정신을 젊은 세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매스컴은 사회의 거울이다. 신문 방송을 보면 사회 각 분야의 잘 못된 면과 어두운 면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발전의 밝은 면을 확대 보도한다면 국민들은 삶의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법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양날의 칼로 집행되어야 한다. 안정사회로 가는 길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신뢰 속에서 정든 이 웃과 정든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리교회원로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편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강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주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리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원장 유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성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광명민 목사

- 예정(예)총회 인천노회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복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원수원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대한보수교단협의회

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157-881 서울시 강서구 학곡1동

348-21 호송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예복부흥 사관학교

대표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광명민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립 목사	 김영예 사모
교수진			
 김창환 교수	 임태우 교수	 박형모 교수	 고요한 교수
 곽세영 교수	 한관수 교수	 김성기 교수	 박정자 교수
 임요한 교수	 전미리 교수	 김창수 교수	

■ 광명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정(예)총회 인천노회소속
- 예복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원수원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본사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중요 및 교재 무료 제공

- ☎ 시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학술원)
- ☎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 ☎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예복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매주 금. 토 오전10:00부터~
“ 몸찬양(무용,국악,찬양)매주(목)오전10:00~

임해숙 목사 창연힐링마을 개원감사예배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임한다



설교 총회장 김진수 목사



사회 홍항표 목사



원장 임해숙 목사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특수지방증경회장, 한국경목총회 협동총무)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472(양평갈운수련원)에서 창연힐링마을 개원감사예배를 드렸다.

임해숙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운여진 간사의 수화와 통역으로 시작되어 한경총 서기 박양우 목사의 기도, 회계 양미상 목사의 성경봉독(벧전4:7~11절),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한국경찰청 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대광교회 당회장)는 “기도”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진수 총회장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하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

또한 한국경목총회

와 성도들은 13만 경찰복음화를 위하고 60만 경찰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말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장

과 사업장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와 한국경목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총회로 거듭나자며 당부하고, 창연힐링마을(양평갈

운수련원) 개원하게 된 임해숙 목사

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하했다. 순서에 따라 박용숙 목사(한경총 협동총무/주성정각장애교회)의 봉헌기도와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과전영락교회), 김재호 목사(한기농총회장/지구촌농아교회)가 격려사를, 송명환 목사(특수지방증경/남원에바다농아교회)의 축사와, 김창식 서장(경기 양평경찰서총경)을 대신하여 청원지구대 소장 도문호

경위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양평경찰서장 김창식 총경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직전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 이효은 목사를 대신하여 총회장 김진수 목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회의록서기 우영문 목사, 부서기 최용진 목사, 창식 서장(경기 양평경찰서총경)을 대신하여 청원지구대 소장 도문호

유로교회)를 경목총회 경찰선교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직전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제37회 정기총회 장소를 제공하고 협력해 준 대광교회와 총회장 김진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창연힐링마을(갈운수련원) 대표이며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는 “주님의 피로 이 기도원 및 수련원을 세우시고 본원 개원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

록 인도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개원감사예배를 축하하며 한경총 총회장, 증경총회, 직전총회장, 임원여러분과 특수지방회 목사,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임해숙 목사(61)는 총회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 목포에바다농아교회, 서울방주농아교회를 거쳐 현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사장 정기환 목사, 포항교도소 위문 가져

사람에게는 반듯이 삶의 전환점이 있다며 위로와 격려해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정기환 목사(부천 전원중앙교회)는 지난달 7월 위신팀과 함께 포항교도소를 찾아 예배와 댄스, 무언극으로 수용자들을 위문했다.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요한복음 3:16절을 인용 말씀을 선포하자 수용자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감동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정 목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있다면서 성경에 옴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하고, 수용자 여러분이 이곳이 고난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삶의 전환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전원중앙교회 위신팀의

무언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한 성도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살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세속에 취하여 살아오던 중 급기야 자살이란 위험한 늪에 빠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은혜가 회복되었

다는 간증을 하자 수용자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위문행사는 이기학 목사와 포항교도소 소장과 직원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사장 정기환 목사(부천 전원중앙교회)와 무용단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으며 교도소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못자리이며 선교지라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개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교도소 선교에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진수 목사
강도사: 서재형 목사
심방전도사: 김양원
교육전도사: 서대환
사무장로
장로: 문운택, 김형구, 윤규봉
정의영, 박광우, 정명훈
임헌달, 문장길, 백관기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 예배 새벽 5:00



담임 김진수 목사

대한예수교 대광교회



축 한국경목총회 제37회 총회장 김진수 목사



장한국 목사, “성령이 크게 역사하신 필리핀 단기선교”

필리핀 T.U. 종들에게 빛을 비추게 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을 마치고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횡보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수과목으로 정기적으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선교 여정도 같은 동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라하시어 필리핀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본다. 독자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도 동역한다면 함께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

첫째, 레가스피(Legazpi) 그린 힐 교회(Green Hill Church)에서 강론했다

29일 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몇 시간 후에 다시 새벽 즉 6월 30일 첫 비행기로 레가스피(Legazpi)로 이동하여 집회 장소인 그린 힐 교회(Green Hill Church)에 도착하여 첫 번째 강론을 진행했다. 레가스피(Legazpi city)는 내가 두 번째 방문한 필리핀 북부의 도시다. 이미 지난해 첫 번째 집회에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강의가 진행 될수록 집중되었고, 진리를 접하게 되고, 신령한 영적 은혜로 그들이 세워졌다. 실제 등록한 지도자들은 65명에 달했다. 그들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즉 요한복음이나 요한 계시록 등). 그들 중 그린 힐 교회 담임목사님의 사무장이요, 세크리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집회가 끝난 후에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을 봤다. 그녀는 소시도 총장과 함께 내 숙소를 방문해 『Genesis I』에 싸인을 받으면서 아주 기뻐했다.

레가스피는 해발 2,474미터 높이의 마운산이 있는데 1616년 화산폭발로 바위와 용암으로 주변은 초토화 되었고, 그날의 재앙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천주교 회당 종탑부분과 외벽 일부가 길게 잔존물로 남아있고, 마운화산은 그 후 휴화산으로 잠잠하다가 2010년 12월 25일에 다시 폭발 하였고 지금은 연기만 내 뿜고 있다. 폼페이시나 소돔 성을 떠올려 주며 천주교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이 되기도 한다고 느꼈지요.

둘째, 투게가라오에 있는 쏘울 위너스 크리스찬 펠로우십교회에서 강의해

여유 있게 쉴 틈도 없이 곧 바로 두 번째 집회장소인 필리핀 북부 도시로 투게가라오(Tuguegarao city)에 있는 쏘울 위너스 크리스찬 펠로우십(Soul Winners Christian Fellowship : 필립 목사님 담임교회)에 도착했다. 이곳은 레가스피와 대조적으로 경륜과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상당히 분위기가 영성이 충만 했고 처음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태도였다. 이곳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격인 필립 목사님에 의하면 그동안 호주나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특화된 세미나 형태의 집회인 ‘개척 교회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직분자 신앙생활 세미나’ 등의 측면들이 겹치면서 진행해 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가 비중을 두고 기뻐하면서 말한 것은 “이번 『Genesis I』 세미나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예증 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그 많은 세미나중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본문 전체 강제로 강론한 적이 없었다. 예컨대 초반에서부터 ‘빛이 있으라’는 창 1:3의 말씀이 피조물의 빛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듣기는 지금까지 상상불허의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강론의 진리의 깊이가 너무 깊고, 드라마틱하게 증거되었다고 은혜 받은 바를 소회했다.” 그리고 ‘창세기 1’을 했으니 내년에는 ‘창세기 2’를 강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약 100명이 모였고, 4개 조로 나누어 강의 시 중요한 부분을 2~3개의 질문을 제시하면 각 조별로 조장의 주도하에 ‘창세기 1’책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가장 잘 발표한 조는 상으로 준비해간 고급 만년필을 선물했다. 1조에 속한 한 담임 목회자는 그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갈급해 하고 사모했었는데 이번 ‘창세기 1’의 레버랜드 장(강사 목사)의 강론을 통해 크게 은혜 받았고, 내가 받은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누고 싶다고 고백했다.



집회가 끝나고 필립 목사님이 칼라오 동굴(Callao Cave)을 안내해 주었다. 칼라오는 그 지방 언어로 ‘white rock’의 ‘흰 바위’라는 의미로 석회석 동굴인데 입구에 “하나님의 손으로 짠 돛”이라고 못 판에 새겨져 있었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주춧돌 크고 작은 석회석 석순들이 자라고 있고, 조금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펼쳐진 곳을 만나고, 거기에는 결혼식을 했던 ‘동굴 결혼식장’이 있고 주례석과 객석이 있는 돌 의자가 정연하게 놓여 있는 것이 마치 초대교회 필박기에 형성된 갑바도기아, 카타콤베를 연상하게 했다.

그곳에는 첫 번째로 하늘을 볼 수 있는 큰 홀이 뚫려서 빛이 굴 안으로 들어온다. 동굴이 하늘과 맞닿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 동굴에는 일곱 개의 홀이 있고 동굴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빛이 어두운 굴을 비쳐 준다. 칼라오 동굴은 좁은 산 중턱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계시록의 이런 자에게 해당되는 white stone(흰돌)이 계시하고 있듯이 이 칼라오 케이브 즉 white rock 도 종말의 환란 때에 예비처 성도들이 보호 양육 받는 곳과 또 필박, 고난을 통한 순교하는 종들이 결국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 공중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형으로 영적교혼을 받기도 했다.

셋째, 퀘존에 있는 TU본부에서 32명의 박사와정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강의했다

마지막 집회 장소인 퀘존에 있는 TU본부에서 32명의 박사과정의 목사님, 목회자들이 등록하여 강의를 들었다. 깊은 진리로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는 잔치이니 만큼 마귀의 훼방역사도 강열하여 도로 공사로 통행이 중단되어 참석하러 오던 목사들이 되 돌아간 아쉬움도 남았다. 그러나 참여한 목회자들은 인텔리전트하고 깊이 있게 진리를 받아 들이서 깨닫는 분들이 있었고,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완벽하게 소화해 가기도 했다.

예컨대 소시도 총장 사모님이 “이담이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동산에서 내 보내는 것이 어찌

제2:7절과 연결되는가?”라는 심도 있게 질문하고 그것을 답변하여 줄 때 해결 받고 기뻐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몇 명의 남녀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벨기 세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는 것을 볼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임한 것이 확인 되었고, 답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퀘존에서는 인원은 적었지만 질적으로 좋았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라바라 교수가 작년에는 진리를 받은 후 은혜 받고 기뻐하고 기도도 영감 있게 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캐논 카메라에 빠져 사진 찍는 일에 바쁘고 핸드폰의 페이스 북등으로 바빠서 강의에 소홀하는 것이 아쉬웠다. 진리를 받고 더 전심전력 나아가야 되는 데 ‘좋은 것’에 머물면서 ‘더 좋은 것’을 모르니 아쉬울 뿐이었다.

나는 그 ‘더 좋은 것’에 자족하고 기뻐하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소시도 총장은 그리스도의 것 된 하늘에 속한 것을 자주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었다. 영적 리더가 하늘에 속한 진리의 사람이면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속한 진리로 영생으로 인도되지만 리더가 세상 영광이나 명예와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한다면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은 하늘 영광이 막장극을 같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과 또한 여움이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는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것이 여러 가지로 확증이 되는 선교 여정이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선교 역사이고 주사랑 교회 성도들과 주사랑교회 인터넷 방송(jtn.kr)과 지저스 타임즈(www.jtntv.kr)의 방송설교를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 동역에 감사하는 바이고 하늘나라에 모든 선교의 노획물들을 최 일선의 선교현장에서 증거한 나와 나를 도왔던 선교단원들이나 후방의 기도 동역 자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1-16	광운기도원(김해원 원장)
20-23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7-30	성신수양원(윤호근 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3-5	주요리교회(이항구 목사)
10-12	세암교회(김병식 목사)
17-20	교단 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전창대 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원 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 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9-31	관동지역기독교연합성회(최정원 원장)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5-9	성교지방문
11-14	동서교회(라계동 목사)
19-21	경천교회(이영경 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엽 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산기도원(김정원 목사)
17-19	예원교회(한규식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경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금산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갈산교회(김동환 목사)
20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1-23	침중교회(김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침사교회(김진조 목사)
4-7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운기도원(김해원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8-20	광정성경교회(김홍수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원 목사)
2013년 3월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성용 목사)
8-11	성신수양원(윤호근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1	주요리교회(이항구 목사)
2013년 5월	
3	C제일 TV에배
6-8	주향기교회(김진조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3-15	예원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한일연합수련회(집회)
10-13	문사영교회(최대식 목사)
14	오산기도원(김기도원 원장)
17-19	나눔예배교회(최대식 목사)
20-21	국립미지리교회 순방
24-27	전주기도원(김성종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관제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0	성신교회(신승준 목사)
15-19	성교지방문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세계명교회(차영아 목사)
29-31	한기전교단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5-8	금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5	광운기도원(김해원 원장)
19-22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원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교회(최대식 목사)
7	대신미디어에배
7-9	별빛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원수련회
20	천보산기도원
21-23	안원성교회
27	천교지방문
28-30	관동지역기독교연합성회
2013년 11월	
4-9	성교지방문
11-13	행복교회(박성원 목사)
18-20	정월제일교회(최준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	서원교회(김정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원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5-8	금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5	광운기도원(김해원 원장)
19-22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원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교회(최대식 목사)
7	대신미디어에배
7-9	별빛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원수련회
20	천보산기도원
21-23	안원성교회
27	천교지방문
28-30	관동지역기독교연합성회
2013년 11월	
4-9	성교지방문
11-13	행복교회(박성원 목사)
18-20	정월제일교회(최준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	서원교회(김정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원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 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철환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운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현명교회
1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7-19	대우명성교회
21	갈멜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우명성교회
2014년 3월	
3-5	원전교회(최성근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4년 4월	
7-10	관신수양원(박민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진 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4	나눔예배교회(최준원 목사)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3	성교지방문
16-19	반월성교회(서형범 원장)
23-27	성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7-10	예덴교회(양화숙 목사)
14-17	모리산기도원(조선훈 원장)
28-30	전교인어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1-14	관동기도원(김해원 원장)
18-21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28	천문기도원(최정원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국경목총회, 제37회 총회장에 김진수 목사 추대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는 7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대광교회(담임 김진수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예배에 앞서 김진수 목사(대광교회)의 환영사에서 "김 목사는 오래 전부터 경목총회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이효은 목사(선거관리위원장)로부터 경목총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본 교회에서 한국경목총회 제37회 정기총회의 장소로 기회가 주어졌을 것을 영광으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또한 김 목사는 자신의 목양일념 중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라며 한국경목총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힘쓰겠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이날 총무 홍향표 목사의 인도로 1부예배가 시작되어 박양우 목사

(대전경찰청실장/분회서기)가 기도, 양미상 목사(분회회계)의 성경 읽 4:25~32절을 봉독한 후 우슬초 목사(분회 협동총무)가 특송을 했다.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데 있고 심각하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세월호 사건이 화두가 되어 너의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하나가 되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급선무인데 사건만 터지면 내 탓이요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네 탓이라며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 어떻게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나 참패해서 직장에 출근하기가 부끄럽다고 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정치인



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하나가 되어서 문제 해결한 다음에 잘못을 가려내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격부터하고 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은 없다.

본문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

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됴리라'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겠다. 결국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목총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수원할렐루야농아학교 청각인 지방성도들의 수화찬양과 임혜숙 목사(협동총무)의 헌금기도와 이창식 목사(부회장)는 "나라와 자유통일과 대통령을 위하여" 조연기 목사(부총무)가 "이성환 경찰청장을 위하여" 박용숙 목사(협동총무)가 "전국경목원들과 사역을 위하여" 각각 특별 기도를 가졌다.

또한 허식 목사(직전총회장)의 축사와 권면에 이어 이상재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한국경목총회 제37

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장소와 식사를 제공한 대광교회와 김진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분회 총무 홍향표 목사의 광고 및 인사사가 있은 후 총회장 이상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한국경목총회 제37회 정기총회가 총회장 이상재 목사의 사회로 서기 박양우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무에 들어갔다. 회순에 따라 임원선거가 시작되고 선거관리위원장 이효은 목사의 추천받고 단독후보로 나선 김진수 목사(합동, 대광교회 당회장)의 소견발표가 있은 후 제37회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한국경목총회 단독후보로 적극 추천해주신 선거관리위원장 이효은 목사님과 총회장으로 추대해주신 증경총회장님과 직전총회장님, 총무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완벽하게 모든 분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총회장으로 추대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과 동역자 여러분과 지도와 조언을 받으면서 피스메이커로서 저의 스타일대로 호감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총회장(62) 이력서

1980년 1월 24일 칼빈 신학교 졸업, 1982년 2월 13일 총회 신학교 졸업, 1984년 12월 14일 총회 신학대학원 졸업, 1992년 5월 18일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 수료, 1995년 3월 18일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졸업, 1999년 3월 22일 총신 신대원 졸업, 2001년 3월 14일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 2008년 5월 20일 STP 설교학교 졸업, 1982년 2월 24일 함남노회 목사 안수, 1982년 12월 6일 대광교회 설립, 1985년 6월 5일 대광교회 위임목사, 1992년 10월 20일 감남노회 노회장 역임, 1912년 12월 27일 물맷돌 선교회 회장, 2014년 7월 현재 대광교회 담임목사(당회장)

한국경목총회 제37회 임원조직

●총회장 : 김진수 목사, ●증경총회장 조용목 목사, 임신형 목사, 허식 목사, 직전총회장 이상재 목사 ●부회장 : 김종순 목사, 김창룡 목사, 이창식 목사, 유철규 목사, 김길수 목사, 남규열 목사, 강년섭 목사, 임기석 목사, 박동호 목사, 조규성 목사, 김육환 목사, 주광삼 목사, 이기웅 목사, ●총무(사무총장) : 홍향표 목사, 부총무 : 조연기 목사, 협동총무 : 박용숙 목사, 임혜숙 목사, 전남호 목사, ●서기 : 박양우 목사, 부서기 최용진 목사, ●회의록서기 : 우영문

목사, 회의록부서기 최화목 목사, ●회계 : 양미상 목사, 부회계 정운선 목사, ●감사 : 이효은 목사, 홍철표 목사, . ●지도고문 : 지왕철 목사, 박한규 목사, 권다윗 목사, 황원찬 목사, 한경총 언론대표 정기남 목사, 의료선교대표 박용준 원장 등이다.

한편 멕시코 박용태 선교사의 선교보고에서 멕시코 정부로부터 교회를 건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멕시코 중심지에 땅을 기증해 주었다고 한다. 당장 3억 원 정도의 건축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뜻이 있는 분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피종진 목사 8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int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9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3(주)~6(수) 태백순복음교회(오대석 목사) ☎ 010-5372-0735
7(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8(금) 오후 광복69주년 삼기 기독교민통일기도회(장소: 서울 여전도회관)
주최: 기독교민중연합회의(문원순 목사)
제185차 해외성회(185th Overseas Assembly)
11(월)~12(화) 캄보디아(Cambodia) 씨엠립 원주민교회
13(수)~15(금) 캄보디아(Cambodia) 시스본 원주민교회
18(월)~19(화) 일본(Japan) 총회신학교(총장 정소영 목사)
나리타Campus(학장 정소대만 목사) ☎ 090-6523-9118
20(수) 오후 일본(Japan) 동경 길렐산골식기기도원(원장 김태실 목사)
☎ 090-6535-9118
21(목) 오후 일본(Japan) 동경 우에노Park광장 노숙인 전도대성회
(주최: 일본선교회) ☎ 070-8625-9118
22(금)~23(토) 일본(Japan) 총회신학교(총장 정소영 목사)
나리타Campus(학장 정소대만 목사) ☎ 090-6523-9118
25(월)~28(목) 제주도수양관 치유이카데미(원장 정요한 목사) 수련회
29(금)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1)947-0091
주최 :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31(주일) 오후 평택 영광제일교회(임태환 목사) ☎(031)657-7544

포항교도소 수용자들이 행복하게 웃었다

담장 안에서 터져 나온 수용자들의 폭소

포항시 소년 소녀 합창단(단무장 최정미)은 경북 포항교도소를 찾아 7월 10일 오후 2시 30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소년 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자들은 폭소를 자아내는 등 화기에 애한 자리가 되었다.

포항교도소를 찾은 포항시 소년 소녀합창단은 1990년에 출범하여 1991년부터 정기 공연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11일에는 제 22회의 정기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24년의 역사를 가진 포항시 소년 소녀 합창단은 많은 공연을 해 왔지만 교

도소 공연은 처음이라고 했다.

박기완 지휘자는 교정 사역자 이기학 목사(합동)와 함께 교도소 공연을 기획하면서 과연 합창단원과 자모들이 협조할까 하는 기대 반 염려 반이 있었지만 공연을 한 후 에 너무나 좋았다고 했다.

합창단 단무장 최정미씨는 솔직히 걱정을 했다고 한다. 공연 중에 혹 치마를 입은 어린이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연을 보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본인이 부끄럽다고 했다. 또한 트레이너인 이상은씨는 단원들에게 이번 공연은 정기공연이 아닌

교도소 공연이라고 할 때 어린학생들이 처음에 "왜 교도소요" 라고 했지만 공연을 마치고, 어린 학생들은 "잘 살아야겠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합창단의 자모이자 이사인 김소영씨는 둘째 아이가 사춘기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교도소에 다녀온 후 성숙해 진 것 같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이를 보니 정말 교도소 공연은 참으로 잘 했다고 했다.

또한 홍보팀장 변다경씨는 포항시 소년 소녀 합창단은 앞으로 준비된 곳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과 소망, 기쁨을 주는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포부를 다짐했다.

포항시 소년 소녀 합창단의 단원들은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서 공연을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이번 공연에 감사하다고 했고, 단무장 이하 임원들은 처음에 편견 속에 공연을 했지만 공연

후 많은 것을 배웠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했다.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괴물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도소의 수용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포항지사 이기학 기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대한예수교 영광교회 장로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김종록,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호,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원명숙
· 교육전도사: 이민균, 이윤경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박남희 · 지 휘: 조은총, 왕소정
·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후후 8:00	금요일야 예배 밤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6:30

가보고 싶은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 추천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